

2. 합격 정보

1차 시험 점수	헌법, 상법	민법, 가족관계법	민집법, 상업등기법	부등법, 공탁법
	62 (20/42)	80 (68/12)	76 (50/26)	62 (28/34)
2차 시험 점수	민법	형법,형사소송법	민소법, 민사사건서류	부등법, 등기신청서류
	46.5	22.5 / 31.75	40.5 / 17.75	35.5 / 24

3. 합격자 학습 정보

1차 시험 응시 횟수	(3) 회
2차 시험 응시 횟수	(2) 회
총 수험 기간	(62) 개월
1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법무사 단기 인강
2차 시험 준비 방법 (중복 선택 가능)	법무사 단기 학원 및 인강
법무사단기 수강 이력 여부	있음

4. 합격 후기

- 어떻게 학습을 하셨는지 각 주제 별로 작성해주세요! (글자수 제한 없음)

주제1. 수험 시작 동기와 수험 기간

- *어떻게 수험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합격하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걸렸는지 등*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을 마무리 하지 않은채 자퇴를 한 후 2년동안 초,중,고 검정고시를 모두 마치고 아버지의 권유로 중학교 2학년 9월부터 법무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1년차에는 법원직단기 민법강의를 8개월, 법무사단기 헌법과 상법을 4개월 공부하였고 시험은 보러가지 못했습니다.(순공 약 5시간)

2년차에는 사춘기를 겪으면서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고 생소하게 느껴지는 부동산 등기법과 민사집행법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결국 평균 44.5점이라는 점수로 첫 시험에 불합격했습니다.(순공 약 5시간)

3년차에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한봉상 선생님과 박효근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면서 주요과목의 실력이 늘었으며 실전모의고사를 모두 보면서 점수를 높여갔고 결국 59.5점 합격선에서 0.5점 부족한 59점으로 불합격했습니다.(순공 약 6시간 30분)

4년차에는 1차시험이 끝난 직후 2차를 6개월 공부하였고 학원 모의고사가 시작되는 2월부터 이전연도에 공부하던 객관식 교재를 복습하고 실전모의고사를 빠짐없이 모두 봤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와줘서 1차시험 보기 2개월 전까지는 1,2차를 병행하였습니다. 결국 30회 법무사 1차 시험에서 평균점수 70점에 만18세의 나이로 합격할 수 있었고 그해 처음으로 2차 시험장을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꾸준히 공부를 한 덕분에 처음 본 2차(생동차) 시험도 평균 47점으로, 모든 과목에서 과락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기득권 2차 과정에서도 과락 걱정 없이 공부 할 수 있었습니다. (순공 약 8시간)

결국 5년차에 기득권으로 31회 2차시험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순공 9시간 이상)

주제2. 나만의 학습 방법

- *나만의 학습계획 수립법 / 스터디,서브노트 활용법 / 하루 공부계획 등*

1. 생활습관

일단 수험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에 두고 독서실에 다녔고 잠을 자는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 및 독서실에 입실하고 퇴실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2. 공부시간

3년차부터는 공부한 시간을 캘린더에 기록하며 공부시간을 일정하게 가져가면서도 꾸준히 늘리려고 노력했습니다.

3. 학원커리큘럼 따라가기

학원커리큘럼이 가장 보편적이고 확실한 합격방법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할까? 이런것까지 외워야할까? 배운것이 시험에 만나오면 어떨지? 등의 의심이 들어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사항과 출제하신 문제는 무조건 외우고 숙달시켰습니다.

4.오답노트

저는 시간절약을 위하여 오답노트를 별도로 만들지 않았고 객관식 문제의 경우 문제의 해설 부분에 모르는 지문이나 틀린지문의 키워드만 밑줄을 그어 시험 직전에 빠르게 읽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런 공부방법 덕분에 짧은 시간내에 회독수를 최대한 많이 가져갈 수 있었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3. 과목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과목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과목별 공부법 / 취약 과목 극복법 / 과목별 학습 비중 / 과목별 추천 강좌 등

1. 헌법 (문태환 선생님)

위헌 or 합헌 여부를 따라하다보니 어느덧 헌법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O,X자료 덕분에 1,2차를 병행할 때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2. 상법 (차상명 선생님)

중학교 3학년 때 처음 접한 상법이었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로 쉽고, 기억에 강렬하게 남도록 설명해 주셨고 모의고사에서 "~할 수, ~만"처럼 조사만 바꾸어 오답을 유도하도록 하는 객관식을 대비시켜주셔서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3. 민법,민소법 (박효근 선생님)

판례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해 주셨고 키워드와 화살표등 부호만으로 그림처럼 설명해주셔서 판례를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박효근 선생님의 판서방식을 다른과목에도 적용하여 판례의 법리와 구조를 정교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결론과 이유, 사안의 해결의 답안작성 방식으로 중요한 판례를 잘 현출하면서도 주어진 시간 이내에 좋은 답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4.민사집행법,가족관계등록법,공탁법 (한봉상 선생님)

1차 합격에 중요한 과목들을 꼼꼼히 가르쳐 주셨고 반복되는 설명들과 선생님의 피꼬리 같은 목소리가 시험 끝나고도 아직 귓가에서 떠나지 않네요^^ 너무 좋은 강의 덕분에 공탁법 고득점으로 당시 어려웠던 부등법에도 불구하고 4교시 과목 과락을 면할 수 있었으며 교수님의 집행법 강의를 들은 후 전년대비 높은 점수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5. 상업등기법 (최재용 선생님)

중요한 요점설명, 기출문제 구성, 깔끔한 강의 덕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고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고, 공부 방법등 여러 부분에서 조언을 해주신 저의 멘토님 이셨습니다.

6. 부동산 등기법 (오영관 선생님)

등기법은 제가 가장 어려워 하던 과목이라 예규특강, 등기신청서 2순환, 등기법 3순환을 실강으로 수강했습니다. 모르는 부분을 실강에서 선생님께 질문하기 위하여 수강준비를 열심히 했고 그 과정에서 답을 찾는 경우도 있었으며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과 꼼꼼한 첨삭으로 실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좋은 강의와 책, 교수님의 친절한 설명 덕분에 발목을 잡던 과목에서 오히려 전략과목이 되었던것 같습니다.

7. 형법,형소법 (최철훈 선생님)

익숙하지 않은 형사법을 너무도 재밌는 이야기로 풀어주셔서 판례들이 기억에 오래 남았고 공부할때도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한 형소법의 최신판례와 형법의 출제경향에 맞는 강의로 큰 부담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실제 출제된 모든 형소법 문제들이 선생님께서 선별하여 모의고사로 풀어본 최신판례들 이였기에 동차시험과 유예생으로 본 시험모두 좋은 점수를 편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8. 민사서류작성 (김지안 선생님)

“국.수.호로.마친.”등의 두문자와 완벽한 청구취지 및 간략한 청구원인, 소장의 완전한 형식으로 인해 그해 어려웠던 서류작성 시험을 적절하게 시간 배분을 하여 서류작성과 민소법 모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주제4. 시기별 학습 방법 및 고득점 팁 & 시기별 법무사단기 강의 추천

- 월별 또는 시기별(ex.문제풀이과정) 공부 방법 / 시기별 추천 강좌 또는 학습 방법 등

1차 객관식 문제풀이 방법

1차는 실전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한것 같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은 하지 마시고 꼭 학원에 나오셔서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차시험을 보기전 8과목 전부를 2시간 이내에 보기 위해서 전에 본 모의고사 해설지에 틀린 문제, 모르는 지문 및 중요한 지문의 키워드를 체크해서 1차시험 직전까지 읽는 연습을 했습니다.

객관식은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맞추느냐 보다 모든 지문에 “O, X, △” 표시를 해가며 내가 모르는 부분과 자주 틀리는 부분을 확인하여 고쳐나갔으며 명사 위주의 간략한 키워드 체크와 속도, 확실히 아는 지문을 늘려가는 것 (세모를 줄이는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순환

처음 법학을 공부하는 저에게는 기본이론을 따라가기도 힘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말씀처럼 목차를 주의깊게 보며 개념들이 어디서 전개되는지 큰 틀을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한 과목을 공부하면 공부했던 다른 과목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정리되지 않는 느낌이 들었지만 2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기초를 쌓는 과정이다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수강했습니다.

2순환

진도별로 객관식을 풀어보니 같은 지문이 계속 반복되면서 슬슬 감이 잡히는 시기였습니다.

객관식 교재를 볼 때 답을 교재를 직접 표시하지 않고 해답부분을 가린 후 빈 종이에 먼저 O, X, △ 를 표시하여 문제를 풀었고 틀린 문제에는 “-”표시(반복해서 틀릴수록 정가 되도록)를 해두고 모르는 지문의 해설 부분과 틀린 문제만 반복해서 풀어보며 회독수를 늘렸습니다.

2순환을 시작할 즈음 실전모의고사가 매달 있는데 점수를 걱정하지 마시고

꼭 학원에 나오셔서 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3순환

O,X 혹은 전범위 모의고사로 빠르게 전과목을 보았습니다. 2순환을 성실히 따라오셨다면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때 시험 막판까지 볼 자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2순환 객관식 교재도 괜찮고 3순환 OX 문제집도 좋아서 편한 형식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나만의 루틴 만들기)

4순환 특강

저는 마지막에 시간이 부족해서 4순환 특강은 문제만 풀었고 문제해설에서 잘 이해가 안되는 부분만 해설강의를 들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활용하시면 시험을 앞두고 회독수를 늘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1,2차 병행

1,2차 병행의 경우 1차는 실전모의고사 직전에는 1주일 정도 동안 선택해둔 과목별 객관식 교재 또는 O,X문제로 모든 과목을 1회독 한 후 2일동안 실전모의고사 해설지에 형광펜을 친 키워드(중요한 것, 틀린것)를 확인한 다음 실전모의고사를 보고 왔으며 나머지 3주 동안은 2차 강의를 수강했습니다.

2차는 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때까지는 아직 배운것이 많지 않아서 글로 쓰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2차 강의를 반복해서 들으며 판례의 법리와 구조를 이해하고, 키워드 위주의 판례 암기와 선생님 답안을 보고 배점에 맞추어 간추려서 따라쓰기를 했습니다.

2차 동차때는 2순환강의와 동차반 강의를 빠르게 돌려들었고 막판 원데이 특강때 선생님이 찍어주셨던 것은 모두 암기하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2차

주관식 문제풀이 방법

주관식은 교재를 보지않고 판례를 답안지에 쓸 수 있어야합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는 1단계로 판례를 정교하게 이해하기 2단계로 선생님 답안을 간추려서 따라 써보기 3단계로 안보고 키워드만 써보기 4단계로 중요한 판례의 표현 써보기 (2~5줄 판례) 5단계로 결론과 이유, 해당 판례, 사안의 해결까지 매끄럽게 쓰기로 점점 목표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법무사시험은 학설보다 판례를 쓰는 것이 중요하고 결국 사례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법을 제외하고는 목차 없이 결론, 이유로 나누어 썼고 판례는 충실히 표현하고 사안의 해결은 甲, 乙, 丙, 丁, 당사자를 대입하여 간결하게 마무리 하는 방식으로 답안을 구성했습니다.

답안작성시 소목차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았지만 공부할 때 주의깊게 보아 두었던 소목차를 생각하며 내용이 중구난방이 되지 않도록 작성했습니다. (논점이탈 방지)

예비순환

예비순환에서는 기본이론을 충실히 복습하며 따라 가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은 이전년도의 동차반이나 2순환 문제를 같이 풀어봐도 좋을것 같습니다.

1순환

처음 문제를 풀어서 첨삭을 받는 때 입니다. 그날 배운 것을 복습하고 중요한 판례의 키워드(표현)을 암기하고 중요한 판례를 직접 손으로 안보고 써보는 연습을 최대한 많이 했습니다.

2순환

진도별 모의고사로 각 파트별로 자세하게 문제를 풀었습니다. 2순환에서는 법리의 정교한 이해와 판례암기가 잘 되어야 합니다. 이때 각 과목의 이해도와 성적이 가장 많이 오릅니다.

저는 문제를 더 풀어보고 싶어서 이전년도 3순환 문제를 뽑아서 배점에 맞게 문제집을 만든 다음 매일 아침마다 실제 시험처럼 하루에 2시간씩 꼭 풀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모르는 문제도 정답에 가까운 답안을 표현해내는 연습이 되었습니다.

3순환

문제를 먼저 풀 후 강평을 통해 진도를 나가는 과정입니다. 배점에 맞는 시간분배, 판례표현이 잘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원에서 진도가 나가는 과목 이외로도 2과목씩은 더 복습을 하였습니다.

4순환 원데이 특강

동차생분들은 이것만이라도 준비한다는 느낌으로, 유예생분들은 3순환 문제와 함께 선생님이 추려주시는 자료를 정리해서 시험장까지 들고 가시면 됩니다.

주제5. 후배 예비 법무사들을 위한 학습 팁 및 하고 싶은 말

- 나의 슬럼프 극복 방법 / 체력 관리법 /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 꿀팁 / 수험생에게 하고 싶은 말 등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조급한 마음 → 무리(오버페이스) → 컨디션 악화 → 좌절 → 공부방법의 퇴보(실강에서 인강, 독서실에서 집으로 등)의 반복으로 슬럼프에 빠지고는 합니다. 법무사시험은 평균 3년이 소요될 정도로 공부량이 많은 마라톤과 같은 시험입니다. 빨리 합격하고 싶은 욕심을 버리고 늘 똑같이 그리고 꾸준히 매일 성실하게 공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무사 시험등 전문직 시험은 창의력을 요한다거나 높은 지능을 요하는 시험이 아니라 그 전문분야에 대하여 숙련된 사람을 뽑고자 하는 시험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포기하지 않고 학원 커리큘럼에 따라 일정시간의 공부시간과 회독수를 늘려간다면 반드시 합격 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시험이 끝나는 그 날까지 전력을 다해서 꼭 좋은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